

6·25전쟁기 피아 항공기와 함정의 운용

姜 昌 國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1. 머 리 말
2. 항공기 운용
3. 함정 운용
4. 항공기 및 함정의 운용상 특징
5. 맺 음 말

1. 머 리 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38도선을 돌파 남침하자 한국군과 유엔군이 개전초기에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어, 남한이 백척간두의 기로에서 공산화되기 직전, 북한군의 기도를 좌절시켰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3년 1개월이나 계속되는 동안, 쌍방은 38도선을 각각 3회씩이나 남으로는 낙동강, 북으로는 압록강까지 오르내리며, 전국토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6·25전쟁이 치뤄졌다.

“전쟁은 무기가 수행한다”는 말이 있듯이 6·25전쟁에서도 전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바로 武器(Weapon)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전쟁이 진전되면서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공산군이 운용한 武器體系¹⁾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6·25전쟁은 전쟁사적 관점에서 현대전쟁의 성격을 띠지만 핵무기가 개발되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在來式 武器²⁾가

<표 1> 6·25전쟁 초기 한국군과 북한군의 공군·해군 현황³⁾

구 분	한 국 군	북 한 군
공 군	* 장 비	* 장 비
	L-4 연락기 8대	YAK-9 전투기 84대
	L-5 연락기 4대	IL-10 전투기 113대
	T-6 연습기 10대	PO-2 및 TU-2 12대
	계 22대	기 타 17대
* 병 력: 1,897명	계 226대	
		* 병 력: 2,800명
해 군	* 장 비	* 장 비
	상륙정(LCI) 및 소해정(AMS) 28척	전투함(어뢰정) 30척
	수송선 및 기타 5척	수송선 및 기타 5척
	계 33척	계 35척
	* 병 력: 6,956명(해병대 1,241명)	* 병 력: 13,700명(해병대 9,000명)

- 1) 최근에는 전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화기와 인원, 소프트웨어(Software), 종합군수지원(ILS: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등으로 이루어진 전체 體系(System)가 필요하기 때문에 武器體系(Weapon System)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최석철, 『무기체계·현대·미래전』(21세기군사연구소, 2003), p. 23 참조.
- 2) 在來式武器(Conventional Weapon)란 核武器,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총칭으로 통상 武器 또는 非核武器라고도 한다.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1999), p. 451; 합동참모본부, 합동참고교범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1998), p. 345 참조.
- 3) 북한공군의 전력은 소련군 극동 방면군사령부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7월 31일 까지의 전황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조선에서의 전투일지』에는 총 병력 2,800명, 항공기 226대로 밝히고 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② 北韓의 全面南侵과 初期 防禦戰鬪』(2005) pp. 19, 746~747, 773; 공군본부정훈국, 『북한공군』(1951), p. 34;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1권 요약통사(1990), p. 115 참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制限戰爭(Limited War)⁴⁾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피아가 경쟁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하기도 하였다.

6·25전쟁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주로 政治外交史, 軍事史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⁵⁾ 지금까지 지상 무기운용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 산물이 있으나,⁶⁾ 항공기와 함정의 운용에 관한 연구는 부족했다. 따라서 필자는 6·25전쟁기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공산군이 사용한 항공기⁷⁾와 함

4) 制限戰爭(Limited War)이란 한정된 정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행동지역, 사용수단, 사용무기, 병력 및 달성해야 할 목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면서 수행하는 무력전을 말한다. 육군본부, 위의 책, p. 528; 합동참모본부, 위의 책, p. 421 참조.

5) 6·25전쟁에 관한 政治外交史 중심의 연구는 라종일, 『끝나지 않은 전쟁, 한반도와 강대국 정치(1950~1954)(전예원, 1994);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I(나남출판, 1996); 김학준, 『한국전쟁-원인·과정·휴전·영향』(박영사, 1997); 김영작·서주석 외, 『한국전쟁과 휴전체제』(집문당, 1998); 6·25전쟁에 관한 軍事史 중심의 연구는 국방부, 『韓國戰爭史』(197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要約』(198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1989);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1995); 국방군사연구소, 『UN軍支援史』(199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Ⅰ 戰爭의 背景과 原因』(2004);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Ⅱ 北韓의 全面南侵과 初期 防禦戰鬪』(2005); 해군본부전사편찬관실, 『大韓民國海軍史』 작전편 제1·2집(1954, 1957); 공군본부, 『空軍史』 제1집 증보판 1949~1953 (1991) 참조.

6) 6·25전쟁기 무기운용에 대한 연구는 강창국, 6·25전쟁기 피아 지상무기 운용, 『軍史』 제52호(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나종남, “한국전쟁에 사용된 피아 주요무기 비교”, 『국방과 기술』 2000년 6월호(방위산업진흥회); 최석철, 『무기체계@현대·미래전』(21세기군사연구소, 2003) 참조.

7) 6·25전쟁기 항공기 운용에 관한 기록은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Steadfast and Courageous FAEF Bomber Command and the Air War in Korea 1950-1953*, the Korean War Fiftieth Anniversary Commemorative Edition,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Washington, DC: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Judy G. Endicott, *The USAF in Korea Campaigns, Units and Stations 1950-1953*, the Korean War Fiftieth Anniversary Commemorative Edition,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Washington, DC: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공군본부, 『空軍史』 제1집 증보판 1949~1953(1991); 공군본부, 『Republic of Korea Air Force in the Korean War 1950~1953』(2001); 공군본부, 『UN空軍史』 한국전쟁(1950. 6~1952. 6) 참조.

정⁸⁾의 운용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때로는 항공기와 함정의 구체적인 운용사례도 살펴볼 것이다.

2. 항공기 운용

항공기는 크게 일반목적기, 특수목적기, 회전익기, 무인항공기로 분류한다. 본 장에서는 6·25전쟁기 전쟁 단계별,⁹⁾ 항공작전 성격별¹⁰⁾로 한국공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공산군의 항공기 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8) 6·25전쟁기 함정 운용에 관한 기록은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제10·11권(1979, 1980); 국방군사연구소, 『UN軍支援史』(1998); 해군본부전사편찬관실, 『大韓民國海軍史』 작전편 제1·2집(1954, 1957); 해군본부, 『미해군 한국전참전사』(1985); Malcolm W. Cagle 저, 신향식 역, 『韓國戰爭海戰史(The SEA WAR in Korea)』(21세기군사연구소, 1998); James L. George 저, 허홍범 역, 『군함의 역사(History of Warship)』(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4) 참조.
- 9) 6·25전쟁의 첫째 단계는 북한군이 38도선을 돌파하여 낙동강 선까지 이르렀던 ‘북한군 남침기’(1950. 6. 25~9. 15)이며, 둘째 단계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38도선을 넘어 압록강변의 초산까지 진격하였던 ‘유엔군의 반격 및 북진기’(1950. 9. 15~11. 25)이고, 셋째 단계는 중공군의 개입과 더불어 단행된 공산군의 대공세로 유엔군이 평택-제천-삼척선(37도선)까지 후퇴한 다음 재반격으로 38도선을 회복하게 된, ‘중공군의 개입 및 유엔군의 재반격기’(1950. 11. 25~51. 6. 23)이며, 넷째 단계는 휴전 회담의 진행과 더불어 쌍방이 38도선 부근에서 對陣 상태로 공방전을 전개하였던 ‘교착진기’(1951. 6. 23~53. 7. 27)이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要約』(1986), pp. 109~110 참조. 본 고에서는 연구 목적상 6·25전쟁 단계를 북한군 남침기와 유엔군의 반격·북진기를 합하여 ‘전쟁 초기’(1950. 6. 25~1950. 11)로 구분하여, ‘중공군 개입 이후’(1950. 6. 25~1950. 11), ‘휴전협정기’(1950. 6. 25~1950. 11)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연구할 것이다.
- 10) 6·25전쟁시 항공작전 성격별 항공기 운용은 공중우세군 획득을 위한 제공작전, 후방차단작전, 근접항공지원 및 공중보급수송 작전에 대하여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전쟁 단계별 항공기 운용

1) 전쟁 초기 항공기 운용(1950. 6. 25~1950. 11)

① 유엔공군의 항공기 운용

6·25전쟁 이전에 한국공군은 1948년 9월 13일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L-4 연락기¹¹⁾를 미군으로부터 인수하였다. 1949년 여수·순천 10·19사건 시 L-4형 항공기를 운용하였으며, L-5 연락기를 추가로 공급받아 L-4와 L-5 항공기 20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1950년 캐나다로부터 T-6 항공기¹²⁾ 10대를 구입하였다. 6월 26일부터 T-6기의 양 날개를 개조하여 8개의 폭탄 걸이 장치를 만들어 육군병기창에서 제작한 국산폭탄(15kg)을 장착하고 여의도비행장(K-16)을 출발하여 동두천과 포천 방면으로 출격, 북한군의 전차, 차량, 보병을 목표로 공격을 가하였다. 6월 27일까지 274개의 폭탄을 모두 소모한 후 정찰 임무로 전환하였다.¹³⁾

1950년 7월 2일 미 공군이 프로펠러식 F-51 무스탕(Mustang) 전투기¹⁴⁾ 10대를 한국공군에 최초로 인도하였으며, 한국공군의 첫 출격은 F-51 전투

11) L-4 연락기는 1930년대 민간용으로 설계된 Piper J3 Cub를 1941년 미 육군이 정찰 및 지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40대를 구입, O-59로 명하였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6,000대를 군용으로 생산하여 제2차 세계대전 시 표적지시, 조종사 훈련, 연락임무 등에 사용되었고 6·25전쟁에서는 개량형인 L-18을 투입하였다.

12) 6·25전쟁 당시 T-6G가 미 해·공군의 정찰과 전방항공통제기로 사용하였다. 한국은 국가의 건설과 국민의 애국심을 상징하기 위해 1950년 5월 14일 캐나다로부터 30만 달러의 국민현금으로 10대를 구입, 여의도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명명식에서 “建國機”라 명명하였다. 1950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단 살포, 전차 및 차량공격에 투입하였다.

13) 공군본부, 『Republic of Korea Air Force in the Korean War 1950~1953』(2001), p. 217.

14) F-51 무스탕(Mustang) 전투기는 제2차 세계대전 시 가장 유명한 전투기로 미국 North American사가 설계하여 총 15,386대를 생산하였다. 6·25전쟁에서 호주와 남아공이 F-51로 참전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미 고문단 헤스(Hess) 소령은 자신의 F-51 전투기에 “信念의 鳥人(An Air Man of Conviction)”이라는 글씨를 부착하고 비행하였다. 이후 1951년 말 40대, 전쟁 말기인 1953년 7월에 78대를 보유, 한국공군의 유일한 전투기로 참가하였다.

기가 대구비행장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인 7월 3일에 영등포 방면에서 수원
으로 남하하는 북한군 제4사단을 직접 지원하던 제107전차연대를 공격함으
로써 시작되었다.

6월 26일 정오 무렵 북한의 YAK 전투기¹⁵⁾ 5대가 김포비행장을 기습하자

<표 2> 6·25전쟁 참전 한국군 항공기 현황¹⁶⁾

구 분	L-4 (Grass-hopper)	L-5 (Sentinel)	L-16 (Grass-hopper)	L-17 (Navion)	L-19/ O-1(Bird Dog)	T-6 (Texan)	F-51 (Mustang)	C-47 (Sky Train/ Dakota)	
폭	35ft 3in	35ft 5in	35ft	33ft 5in	36ft	42ft	37ft 0.5in	95ft	
길 이	22ft 5in	22ft 5in	21ft 6in	27ft 6in	25ft 9in	29ft 6in	32ft 9.5in	64ft 5.5in	
높 이	6ft 8in	6ft 8in	7ft	8ft 7in	7ft 3.5in	10ft 10in	13ft 8in	16ft 11.5in	
중 량	1,100lbs	1,100lbs	1,300lbs	2,950lbs	2,400lbs	5,300lbs	12,100lbs	26,000lbs	
제작사	Piper	Piper	Aeronca	Ryan	Cessna	North American	North American	Douglas	
무 장/ 제 력 능 령						기총2× Cal-30	기총6×12.7mm, 폭탄2×1,000 lbs, 로켓트6×5in	6,000lbs 화물 또는 28명의 공수능력	
속도 (mph)	최대	85	85	110	163	150	210	437	230
	순항	75	75	92	150	115	145		207
최 대 승 고 도 (ft)	9,300	9,300	14,500	17,000	20,300	24,200	41,900	23,200	
항 속 거 리 (NM)	250	250	315	700	530	770	1,300	2,125	
엔 진 (추력)	Continental A10-170/ 65hp	Continental A10-170/ 65hp	Continental O-205-1/ 90hp	Continental O-470-7/ 185hp	Continental O-470-11/ 213hp	Pratt & Whitney R-1340 /550hp	Packard Merlin V-1650-7 V-12/1,685hp	Pratt & Whitney R-1830/ 1,200hp	

15) YAK 전투기는 Yakovlev社에서 전투임무와 연락임무로 사용하기 위해 복좌로 설계한 Y-27의 중량을 감소시킨 항공기로 1941년 5월 생산에 들어갔으며, 전장의 긴급요구로 단좌형을 생산하였다. 이것이 YAK-7A와 복좌형 YAK-7V로 총 6,399대를 1944년 초까지 생산하였고 이중 1,500대가 YAK-7V이다. 여러 가지 변형이 생산되었으며, T형은 대전차 임무를 위하여 37mm NS-37 45mm NS-45포를 장착하였다.

16) 인터넷 자료, <http://www.airforce.mil.kr>과 <http://www.militaryreview.com> 참조.

수송 작전을 엄호하던 미 극동사령부 예하 공군의 전투기들이 이들을 공격하여 3대를 격추시켰다. 이 첫 교전은 미 극동공군¹⁷⁾이 비록 직접적인 한국군에 대한 지원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전쟁초기부터 적의 제공권 장악을 거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표 3> 6·25전쟁 참전 유엔군 항공기 현황¹⁸⁾

구 분	F-80 (Shooting Star)	F-82 (Twin Mustang)	F-84 (Thunder Jet)	F-86 (Sabre)	F-94 (Star Fire)	B-26 (Invader)	B-29 (Super Fortress)	
폭	38ft 10in	51ft 3in	36ft 5in	37ft 1in	38ft 9in	70ft	141ft 3in	
길 이	34ft 6in	38ft 1in	38ft 6in	37ft 6in	40ft 1in	50ft 1in	99ft	
높 이	11ft 4in	13ft 8in	12ft 7in	14ft 8in	12t 2in	18ft 3in	27ft 7in	
중 량	16,856lbs	24,800lb s	15,227lb s	13,791lb s	15,330lb s	35,000lb s	133,500lbs	
무 장/ 적재능력	기총6×Cal-50, 로켓트 8×5in, 폭탄 2,000lbs	기총6×Cal-50, 로켓트 25×5in, 폭탄 4,000lbs	기총6×Cal-50, 로켓트 8×5in, 폭탄 2,000lbs	기총6×Cal-50, 로켓트 8×5in, 폭탄 2,000lbs	기총4×Cal-50, 로켓트24×2.75in	기총8×12.7mm, 로켓트 8×5in, 폭탄 6,000lbs	기총12× Cal-50, 폭탄 20,000lbs	
속도 (mph)	최대	580	482	620	685	630	373	358
	순항	437	280	485	540	520	355	220
최대상승고도 (ft)	45,000	39,900	43,240	49,000	42,750	22,100	33,600	
항속거리 (NM)	1,380	2,200	1,485	1,200	930	1,400	5,600	
엔진(추력)	Allison J33-GE-11/ 3,850lbs	2×Allison V-1710- 143/145/ 1,600hp	Allison J35/ 4,900lbs	J-47-GE/ 5,200lbs	J33 6,000lbs/ J48-P-5 8,750lbs	P&W R-2800-79 /2,000hp	4×Wright R-3350-23/ 2,200lbs	

1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요약』(1986), pp. 137~138.

18) 인터넷 <http://www.airforce.mil.kr>과 <http://www.militaryreview.com> 참고하여 재정리.

미 극동공군¹⁹⁾은 총 1,172대의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전투임무수행을 위해 출격이 가능한 항공기는 F-80 슈팅스타(Shooting Star²⁰⁾ 전투기를 포함하여 총 350대에 불과한 실정이었다.²¹⁾

호주 공군의 제77대대 조종사들은 F-51 전투기에 탑승해 공중전을 벌였으나 북한군의 MiG-15 전투기²²⁾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1951년 6월 말 일명 ‘썩썩이’로 불린 메티오(Meteor)-8 제트기²³⁾로 기종을 전환,

19) 미 공군은 극동공군이 주축이 되었으며, 6·25전쟁기간 중 최대로 3개 공군<제5(일본)·13(필리핀)·20(오키나와·괌)공군>, 약 20개 비행단(제1해병비행단, 제3·17·19·49·58·98·103·126·307·452·474폭격비행단(Bombardment), 제4·35·51전투요격비행단(Fighter-Interceptor), 제8·18·49·58·116·118·136·139전폭비행단(Fighter-Bomber)), 77개 비행대대에 대한 작전을 통제하였다. 미 공군의 활약상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사항은 공군본부, 『UN空軍史』 韓國戰爭 上·下(1975, 197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요약』 上 (1986);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Steadfast and Courageous FAEF Bomber Command and the Air War in Korea 1950-1953*, the Korean War Fiftieth Anniversary Commemorative Edition,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Washington, DC: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Judy G. Endicott, *The USAF in Korea Campaigns, Units and Stations 1950-1953*, the Korean War Fiftieth Anniversary Commemorative Edition,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Washington, DC: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참조.

20) F-80 슈팅스타(Shooting Star)는 미 공군 최초의 제트전투기로 U-2와 SR-71 설계에 참여했던 존슨(Kelly Johnson)이 1943년 설계하여 1944년 6월 최초비행을 하였다. 1948년 “P”를 “F”로 재명명하여 총 1,731대를 생산하였다. F-80계열 중 최종 개발된 항공기가 T-33 훈련기로 1959년 3월까지 생산되었다. 6·25전쟁에서 전폭기로 사용되었고 대지 공격임무를 수행하였다. 1950년 11월 8일 미 공군 제16전투요격대 소속 브라운(Russel J. B개주) 중위가 F-80C로 세계 최초의 제트항공기인 공중전에서 소련의 MiG-15를 격추하였다.

21) 국방부군사연구소, 『UN軍支援史』(1998), pp. 136~137.

22)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이 개발하여 1949년 전선에 등장시켰으며 북한을 포함한 위성국가에 많은 수가 공급되어 유엔군에 대항하였다. MiG-15의 등장으로 서방측은 신형인 F-86을 투입하였다. F-86에 비해 속도, 상승 능력 등이 우수하였으나, F-86의 숙련된 조종사들은 이를 극복하고 공중전에서 큰 우세를 유지하였다. MiG-15-15BIS는 NS-23(22발/초)보다 발사율이 우수한 NR-23(35발/초)을 장착, B-29 등 대형 목표물 공격에 유용하여 B-29를 야간폭격으로 전환하게 만들었다. 6·25전쟁에서는 1950년 11월 7일 UN군의 F-51을 공격함으로써 등장하였으며, 공산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였으나, 조종사의 숙련도가 낮아 다수가 격추되었다.

MiG-15기 3대를 격추하는 등 전공을 세웠으며, 18,872회를 출격해 북한군의 전차와 차량 약 1,500대를 파괴하는 등 북한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 메티오 37대와 무스탕 15대가 격추되고 조종사 42명이 전사하였다.²⁴⁾

캐나다 공군의 제426수송대대는 공중전에 경험이 있는 조종사 22명을 선발하여 미 공군에 파견하여 유엔공군작전을 지원하기도 하였다.²⁵⁾

남아공 공군은 제2전투비행대대를 편성하여 1951년 11월 6일 미 공군으로부터 F-51 무스탕기를 인수하여 유엔공군의 일환으로 작전에 참가하여 한만국경선의 공중초계와 적 후방차단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1951년 7월 8일 평안북도 강동비행장 상공에서 최초로 MiG-15기 4대와 조우한 이후 1952년 3월 20일 북한의 청천강 상공에서 두 번째로 공중전을 벌이다가 무스탕기 1대가 격추되기도 하였다. 1952년 10월 중순부터 중부전선에서 미 제9군단이 쇼다운(Showdown) 작전을 개시하자 철의 삼각지대(Iron Triangle)와 저격능선(Sniper Ridge) 일대에서 공산군과 교전을 하고 있는 미 제7사단과 한국군 제2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네이팜탄을 투하하였다. 1953년 1월 28일 미군으로부터 최초로 F-86 제트기를 3대 인수하여 1953년 3월에는 F-86기로 평양폭격작전과 서부전선의 적 후방차단작전, 7월에는 북한의 신의주, 평양, 사리원, 원산, 회령, 함흥 비행장 폭격작전에 참가하였다.²⁶⁾

미국의 대표적 장거리 폭격기인 B-29(Super Fortress)²⁷⁾는 많은 폭탄

23) 메티오(meteor)-8 전투기는 1943년 영국 공군이 도입하여 운용했으며, 1954년까지 3,947대가 생산되었다. 6·25전쟁 당시 호주 공군이 운용하였다. 주요 제원으로 폭 43ft, 길이 41ft 3in, 중량 13,795lbs, 최대속도 415mph, 무장은 20mm 기관총 4문이다.

24) 미 극동공군은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9개의 비행단(5개 전투비행단, 2개 폭격비행단, 2개 수송비행단), 30개 비행대대, 1,172대의 전술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극동공군의 전력에는 미군의 전력 외에 호주, 남아공, 태국, 그리스의 공군기와 해군기들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호주 공군의 제77대대는 F-51 전투기 47대로 편성되어 일본의 Iwakuni 기지에 주둔하면서 한국을 지원하였다.

25) 국방부군사연구소, 『UN軍支援史』(1998), pp. 272~273 참조.

26) 국방부군사연구소, 위의 책, pp. 350~358 참조.

적재량과 우수한 장거리 비행능력으로 무수한 전략적 폭격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F-86 세이버(Sabre) 제트전투기²⁸⁾를 개발함으로써 제트기 시대를 선도하기 시작했다.

1950년 8월초 북한군이 왜관지역으로 병력을 집결시켜 대구 정면의 위기가 고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 극동공군의 전략폭격사령부는 2회의 絨緞爆擊(Carpet Bombing)²⁹⁾ 임무를 실시하였다. 1950년 8월 16일, 98대(12개 비행대대)의 B-29 폭격기를 동원하여 북한군 4만 명이 집결하여 있는 왜관 서북방의 낙동강 서쪽제방 지역을 폭격하였다.³⁰⁾ 두 번째는 9월 18일, 42대의 B-29 폭격기들이 왜관의 북쪽과 북서쪽에 두 곳에 있는 북한군 병력집결지를 폭격하였다.

27) 보잉 B-29 슈퍼포트레스(Boeing B-29 Super Fortress)는 미국 보잉항공사에서 1943년 제작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기에 활약한 전략폭격기이다. 주요 제원으로서 폭 141ft 3in, 길이 99ft, 중량 133,500lbs, 순항속도 220mph이다.

28) F-86 세이버(Sabre) 전투기는 미 공군 최초의 제트기로 North American사에서 생산하여 1947년 10월 1일 최초비행을 하였다. 1948년 11월 15일 670.9mph의 세계 최대속도 기록을 수립하였다. 이 항공기는 전투기로 설계되었으나 F-86D 전천후요격기와 F-86H 전투폭격기형이 개발되었다. A·E·F·H 모델은 전폭기이며 F-86D·K·L은 전천후요격기로 1956년 12월까지 총 9,502대 이상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하였고 서독·스페인·영국·호주 등 20개국에 제공되었다. 6·25전쟁에서는 1950년 12월 17일 첫 MiG기를 격추한 이래 MiG기와 교전하여 792대를 격추시키고 79대만 손실되었고, 1951년 4월 12일 신의주철교 폭파시 56대로 폭격기 임호임무를 수행하다가 MiG기 105대와 공중전을 펼쳐 20여대 이상을 격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29) 융단폭격(絨緞爆擊, Carpet Bombing)이란 한정된 지역에 최대의 피해를 입히기 위하여 대량의 폭탄을 전면적인 탄막구성으로서 완전히 화력으로 덮어버리는 폭격방법이다.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1999), p. 407. 합동참모본부, 합동참고교범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1998), p. 3309 참조. 1950년 8월 16일(11:58~12:24, 약 26분간)에는 B-29 폭격기 98대(12개 비행대대)를 동원하여 북한군 4만명이 집결하여 있는 경상북도 왜관 서북방의 낙동강 서쪽제방과 병행한 3.5×7마일(5.6km×12km)의 사각형 지역에 50파운드 폭탄 3,600발 이상을 투하하였다.

30)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부도』(1998), pp. 74~75.

<표 4> 6·25전쟁기간 중 유엔군의 대공습 현황³¹⁾

공습 일자	목 표 별	기종	대 수
1950. 7. 10	공주 일대 공습	-	150대
1950. 7. 16	서울 용산 폭격	B-29	59대
1950. 8. 1	홍남 대폭격	-	500대
1950. 8. 16	왜관 대폭격	B-29	99대
1950. 8. 19	청진 공습	B-29	60대
1950. 9. 16	원산 폭격	B-29	80대
1951. 2. 8	신의주 폭격	-	600대
1952. 6. 23	수풍발전소 폭격	-	500대
1952. 7. 11	평양 대공습	-	650대
비 고	※ 미 空軍史上 初有의 제트기 야간작전 (1950. 7. 25) ※ 史上初有 제트기 공중전 (1950. 11. 8)		

② 공산군의 항공기 운용

북한공군은 1949년 3월에 소련에서 IL-10기와 YAK-9기 등 전투기 30대, 1950년 4월에 IL-10기와 YAK-9기 등 약 60대, 같은 해 6월 18일 IL-10기 60대를 도입하여 188대의 전투기와 기타 연습기를 포함하여 211대를 보유하였다. 6·25전쟁 초기에 제공권을 장악하고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김포 비행장, 여의도비행장, 수원비행장 등을 폭격하고 주요 보급로를 파괴하는 등 일 우세한 공중활동을 전개하였으나, 27일부터 유엔공군이 참전하게 되자 개전 3일 만에 제공권을 상실하게 되었다.³²⁾

북한군은 개전 초기에 보유하였던 대부분의 항공기와 전차 그리고 장갑 차량 등 공격용 전력을 상실하였다. 북한군 약 39,000명이 항공기 공습으로 사망하였는데 이 숫자는 북한군이 남침 당시에 동원한 지상군 전력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또한 그들의 기습적인 전격작전의 수행에 가장 큰 역할

31) 공군본부, 『空軍史』 제1집 증보판(1949~1953)(1991), p. 491.

32) 국방부군사연구소, 『韓國戰爭』(上)(1995), p. 171.

을 하였던 전차 전력의 75%에 해당하는 452대의 전차, 약 6,000대의 수송용 차량과 1,300대의 무개차량이 유엔공군 항공기의 공중공격으로 파손되었다. 북한군의 전방 제대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개된 후방차단작전으로 80여 개의 주요 교량과 260대의 기관차량이 파괴되었다.³³⁾

1950년 10월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한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자 11월에는 중국 만주 기지로 이동하여 공군력 증강을 도모하였다. 12월에는 소련의 원조로 MiG-15 전투기 20대를 도입하여 총 34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1951년 12월에는 공군기지를 만주지역으로부터 평양으로 이동하였으며

<표 5> 6·25전쟁 참전 공산군 YAK 전투기 현황³⁴⁾

구 분	YAK-7	YAK-9	YAK-11	YAK-15/17	YAK-18
폭	33ft 8in	32ft	30ft 10in	30ft 2in	33ft 5in
길 이	27ft 10in	28ft	27ft10.5in	28ft10in	27ft 8in
높 이	7ft 11in	9ft 9in	-	7ft 3in	10t 8in
중 량	5,864lbs	7,485lbs	5,379lbs	6,045lbs	30,80lbs
무 장/ 적재능력	기총1×20mm, 2×12.7mm 로켓트 6×RS82, 폭탄	기총1×20mm, 2×12.7mm, 폭탄2×220lbs	기총1×12.7mm 또는 7.7mm	기총2×23mm	-
속도	최대 407	418	289	489	230
(mph)	순항 -	-	-	-	-
최 대 상승고도 (ft)	35,105	32,800	23,295	43,800	17,000
항속거리 (NM)	559	746	795	460	450
엔 진 (추력)	M-105PF/ 1,050hp	Klimov M-107A V12/ 1,650hp	Shvetsov Ash-21/ 570hp	RD-10/ 1,984lbs	HS 6A/ 285hp

33) 이명환, 한국전쟁 기간 중 항공작전 연구, 『軍事史 研究叢書』 第1輯(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 417.

34) 인터넷 <http://www.airforce.mil.kr>와 <http://www.militaryreview.com> 참고하여 재정리.

추가로 전투기를 도입하여 45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1953년 2월에는 IL-28 폭격기를 도입함으로써 정전협정 체결시까지 5개 항공사단에 1개 폭격기사단으로 증강되었으며, 항공기도 MiG-15 전투기 255대, YAK 전투기 102대, IL-10 전투기 47대, IL-28 폭격기 42대 등 489대로 증강되었다.

<표 6> 6·25전쟁 참전 공산군 항공기 현황³⁵⁾

구 분	IL-10	IL-28	LA-5FN/ LA-7	MIG-15	PO-2	Tu-2	
폭	43ft 11.5in	17.65m	9.8m	33ft 7.5in	11.4m	61ft10.5in	
길 이	36ft 9in	21.45m	8.67m	35ft 7.5in	8.2m	45ft 3in	
높 이	11ft 6in	6.7m	-	12ft 2in	3.1m	13ft 11in	
중 량	14,409lbs	12,890kg	7,377lbs	13,327lbs	2,184lbs	28,219lbs	
무 장/ 적재능력	기총2×23mm× 7.62(날개) 1×20mm/12mm (동체), 로켓트4×Rs-8 2/132 폭탄 1,000lbs	기총4×23mm 폭탄 3,000gkg ×2	기총2×20mm 폭탄	기총 2×23mm, 1×37mm, 로켓트 폭탄 1,100lbs	-	기총 2×20mm, 3×7.72mm 또는 12.7mm 폭탄 6,614lbs	
속도 (mph)	최대	311	485	403	670	80	342
	순항	-	-	-	-	67	-
최 대 상승고도 (ft)	24,606	40,355	32,000	51,000	18,800	31,200	
항속거리 (NM)	621	590	478	1,156	268	1,245	
엔 진 (추력)	Mikulin AM-42 V12/ 2,000hp	Klimov VK-1 turbojetx2	M-82FN/ 1,850hp	Klimov VK-1/ 5,152lbs	-	2×Ash-82 FNV/1,460hp	

35) 인터넷 <http://www.airforce.mil.kr>와 <http://www.militaryreview.com> 참고하여 재정리.

2) 중국군 개입 이후 항공기 운용(1950. 11~1951. 7)

6·25전쟁에 중국군이 개입한 이후 공중전은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었다. 중국 만주에 위치한 비행기지에서 출발한 MiG-15전투기는 한국군과 유엔군에게 커다란 위협이었다. 유엔공군이 MiG-15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F-86A-5 세이버(Sabre)를 투입하였는데, MiG-15와 F-86A-5의 대결은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 있는 관심사였다.

1950년 11월 중국군이 개입한 이후부터 1951년 7월 휴전협상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유엔공군의 항공기 운용은 중공군에 포위된 한국군과 유엔군의 후퇴작전을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 작전과 B-29 폭격기에 의한 소이탄 투하 초토화작전 지원이었으나, 중공군의 개입이 확인된 시점에서 미국 합참이 한국과 중국 만주 국경선 5마일 이내의 지역에 대한 폭격을 금지했기 때문에 항공작전의 공세적 특성이 제한되었다.

1950년 11월 5일 유엔군사령부는 중국군의 개입 규모가 커지자,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선 북쪽의 도시와 마을들을 소이탄으로 격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1월 1개월 동안 B-29 폭격기들은 총 3,370톤의 소이탄을 투하하였으며, 이 1개월 간의 소이탄 투하량은 6·25전쟁기간 중의 총 소이탄 투하량의 3분의 1이나 된다. 그러나 12월에는 목표물의 우선순위가 도시로부터 교량차단으로 변경되어 472톤의 소이탄을 투하하였다.

1951년 1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B-29 폭격기들은 평양에 대한 대대적인 소이탄 공격을 실시하였다. 첫 공격에서 평양시의 약 28%를 파괴하였고 두 번째 공격으로 약 35%를 파괴하였다. 여러 도시와 마을에 대한 소이탄 공격에서 투하방식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다면 그 파괴효과는 더욱 컸을 것이다.

3) 휴전협정기 항공기 운용(1951. 7. 10~1953. 7. 27)

1951년 7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의 유엔

공군은 중국군과 북한군을 휴전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질식작전(Operation Strangle)³⁶⁾을 실시하면서 수력발전소에 대한 공격 등 후방차단작전과 더불어 공산군의 지상군에 대한 직접 공격을 실시하였다. 1952년 6월 23일 수풍, 부전, 장진, 허천 수력발전소 등에 대하여 유엔공군과 해군의 항공모함 함재기 등 약 500대가 공격하였으며, 이곳은 MiG-15기가 있는 만주의 안동 근교였으나 공산군 항공기의 반격은 없었다.

1952년 9월 12일에는 32대의 B-29 폭격기들이 다시 수풍수력발전소를 파괴시켰다. 1953년 2월 15일 유엔공군의 F-84 24대가 저공으로 비행하여 발전기시설, 변전소, 배전관 등에 폭탄과 로켓 공격을 할 당시 전폭기를 엄호하고 있던 F-86 전투기들은 MiG-15 2대를 격추하였고 수풍수력발전소는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전협정이 조인되기 2주일 전인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 동안 치러진 중부전선의 금성지역에서 한국군 5개 사단 규모의 9만명이 중공군의 4개 군 약 17만명과 대치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유엔공군의 공중정찰을 피하기 위하여 야간 또는 악천후시 이동을 하였다. 중공군이 계속하여 압력을 가하자 한국군은 5마일 남쪽으로 신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 실지를 회복하기 위한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투는 정전협정 체결 7일을 앞두고 중단되었으나, 유엔공군은 근접항공지원을 위하여 2,465회의 출격횟수를 기록하였으며, 폭탄 7,275개, 네이팜탄 19만 7,140G/A, 그리고 구경 50 및 20mm 탄환 8만 5,365발을 중공군에게 발사하였다. B-29 폭격기는 103회 출격하였고 전술공중지휘소 레이더의 통제하에 폭탄 3,840발을 투하하였다.

36) 교살작전(Operation Strangle)의 제1단계는 1951년 5월말부터 시작되며, 공산군 기동로 주변의 도로망과 이동 수단에 대한 파괴와 후방차단을 작전의 주요 목표로 하였다.

(2) 항공작전 성격별 항공기 운용

1) 제공작전시 항공기 운용

공산군 MiG-15 전투기가 출현하기 전에 한반도 상공에서의 최초의 공중전은 미국이 6·25전쟁 참전을 선언하기 하루 전인 1950년 6월 26일에 치러졌다.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서울이 위태롭게 되자, 미국 정부는 6월 27일 새벽부터 C-54³⁷⁾ 2대와 C-47³⁸⁾ 11대를 동원하여 김포와 수원비행장에서 재한 미국인을 일본으로 후송하는 작전을 개시하였다.

6월 27일 정오 무렵 10,000피트의 고도로 인천 방향에서 서울 상공으로 진입하던 북한공군 YAK 5대를 미 극동공군의 F-82 5대가 요격을 하여 이 중에서 3대를 격추시켰는데 이것이 6·25전쟁 최초의 공중전이였다.³⁹⁾ 같은 날 오후에 북한공군의 Il-10 전투기 8대가 김포비행장에서 공수작전을 수행하는 미군 수송기를 공격하여 초계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F-80C 전투기와 공중전이 전개되어 북한군 항공기 4대가 격추됨으로써 27일 하루 동안에 총 7대를 격추시켰다.⁴⁰⁾

37) C-54 스카йма스터(Sky Master) 항공기는 미국 Douglas 항공사에서 개발한 4발 엔진(p-w R-2000-7) 중·장거리 수송기이다. 1938년에 최초비행을 했으며, 주요 제원으로 폭 38.81m, 길이 28.91m, 높이 8.39m, 중량 17,350kg, 최대속도 437km/h, 최대상승고도 7,100m, 항속거리 6,236km 등이다.

38) C-47 스카이트레인(Sky Train) 항공기는 미국 Douglas DC계열 항공기로 1941년 12월 23일 최초비행을 한 수송기이다. 대부분이 전쟁에 투입되었고, 베를린 공수와 6·25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결정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 6·25전쟁에서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게 되자 평양 미립비행장 철수작전에 투입되었다. 한국공군에서도 운용하다가 1954년에 퇴역하였다.

39) 이명환, 앞의 글, pp. 424~425.

40) 유엔공군의 제68대대(일본)와 제399대대(일본)의 F-82는 불과 명분 사이에 공산군 항공기 3대를 격추시켰다. 허드슨(Sillian G. Hudson) 중위, 리틀(James W. Little) 소령, 모렌(Charles B. Moren) 중위가 각각 1대씩을 격추시켰다. 제68전전후전투대대의 허드슨 중위가 6·25전쟁에서 공산군 전투기를 최초로 격추시킨 조종사라는 명예를 얻었다.

6월 29일 38도 이북의 북한 비행장에 대한 공격이 허용되자, 미 공군 제3폭격대대의 B-29 18대가 평양비행장을 폭격하였다. 7월 2일 유엔공군은 B-29 10대를 출격시켜 동해안 연포비행장에서 16대 중 9대를 파괴시켰다.

미 극동함대 소속의 함재기들도 공중우세작전에 가담하였다. 항공모함 벨리 포지(*Valley Forge*)를 중심으로 한 제77특별기동부대의 함재기들이 7월 3일과 4일에 평양과 온정리 비행장을 공격하였다.⁴¹⁾ 이것이 제77기동부대의 6·25전쟁에서의 첫 출격이다.

7월 12일에는 북한군 조종사들이 적극적으로 공중전을 전개하였다. 서울 근교를 폭격하고 있는 B-29 1대가 YAK기의 공격으로 격추되었고, 그날 오후에는 L-4연락기 1대가 격추되었다. 7월 15일에는 4대 편대의 B-29이 YAK기 2대의 습격을 받고 1대는 대파되어 대전에 불시착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7월 28일, 서울역 조차장을 폭격하고 있던 제22폭격전대의 B-29는 구름 속에서 느닷없이 출현하여 후미에 접근하는 미확인 전투기에 총격을 가하여 그 중 1대를 격추시켰으나 이 항공기들은 영국 항공모함⁴²⁾ 트라이엄프(*Triumph*)에서 발진한 씨화이어(*Seafire*) 전투기⁴³⁾였으므로 결국 우군끼리의 공중전투가 된 셈이었다.

공산군 MiG기가 출현한 시기는 1950년 10월 말 한국군 제6사단이 압록

41) William T. Y'Blood, *MiG Alley-The Fight For Air Superiority*, the Korean War Fiftieth Anniversary Commemorative Edition,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p. 11.

42) 6·25전쟁이 시작되자 최초의 공습은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Valley Forge*)과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 트라이엄프(*Triumph*)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함모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James L. George 저, 허홍범 역, 『군함의 역사(History of Warship)』(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4), p. 332.

43) 씨화이어(Sea-Fire) 전투기는 항공모함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Hook를 장착했으며, 총 2,556대가 생산되었다. 6·25전쟁 당시 영국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1953년 7월 3일부터 전투에 참가하였다. 주요 제원으로 폭 36ft 10in, 길이 29ft 10in, 중량 6,417lbs, 최대속도 369mph, 항속거리 640miles이며, 무장은 기총 2×20mm, 4×7.7mm, 폭탄 2,000lbs이다.

강변의 초산에 도착한 이후인 11월 1일 13시 35분으로 공산군의 YAK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제트기 6대가 압록강을 건너와서 유엔공군의 F-51 전투기에 사격을 가해오면서부터이다.⁴⁴⁾ 1950년 11월과 12월 중 북한지역의 제공권 획득을 위한 공중전은 소위 'MiG 回廊(MiG Alley)'이라는 지역, 즉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의 한반도 서북부 상공에서 치러졌다.⁴⁵⁾

1950년 11월 8일 유엔공군은 북한군 지도부가 위치하고 있는 신의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F-80과 F-51 전투기들이 공산군의 대공포 진지를 기관포, 로켓포 및 네이팜으로 공격하였다. 만주의 안동에서 날아온 MiG-15기들이 도전해 왔다. 이것은 공군 전투 사상 최초의 제트기끼리의 공중전이였다. MiG-15기가 F-80보다 분명히 우수한 점이 입증되었지만 MiG-15기 조종사들의 전술경험 부족이 드러났다.⁴⁶⁾

12월 초 유엔공군의 폭격이 금지된 만주기지에서 발진하는 MiG-15기

44) Judy G. Endicott, *The USAF in Korea Campaigns, Units and Stations 1950-1953*, the Korean War Fiftieth Anniversary Commemorative Edition,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p. 9.

45) MiG 回廊(MiG Alley)은 중공의 MiG-15 전투기가 공공연히 전투에 참여하자, 유엔군의 전 작전지역은 유엔공군의 제공권 확보 여부에 달려있었다. 1950년 11월과 12월 중 북한지역의 제공권 획득을 위한 공중전은 대부분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의 한반도 서북부 상공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지역을 소위 'MiG 회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중공군은 원래 자갈로 된 안동비행장의 활주로를 콘크리트로 재포장하고 이그루(Igloo)와 단단한 표면의 유도로를 건설하였다. MiG 회랑이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This first mission had not gone into the section of northwest Korea soon to become known as "MiG Alley..." William T. Y'Blood, op. cit., p. 13에서 인용;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Steadfast and Courageous FAEF Bomber Command and the Air War in Korea 1950-1953*, the Korean War Fiftieth Anniversary Commemorative Edition,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p. inside cover; Judy G. Endicott, *ibid.*, pp. 34-36; 공군본부, 『UN空軍史 韓國戰爭(1950. 6~1952. 6)』(1975), p. 173; 공군본부, 『6·25航空作戰 敎訓』(1984), p. 23; 국방부군사연구소, 『UN軍支援史』(1998), p. 140 참조.

46) MiG-15 전투기 1대가 브라운(Russel J. Brown) 중위의 F-80 앞에서 급강하하며 피하려고 하였으나, 브라운 중위는 이 MiG의 꼬리를 몰고 기관포를 발사하여 격추시켰다. 이로써 브라운 중위는 한국전쟁에서 MiG-15기를 처음으로 격추시키는 영예를 안았다.

를 제압하고 제공권을 계속 확보할 목적으로 투입된 신예기 F-86A기의 우수성은 12월 17일 공중전에서 MiG-15기 4대를 격추시킴으로써 최초로 입증되었다.⁴⁷⁾

1951년 1월 23일에는 압록강 부근 상공에서 유엔공군의 B-29 폭격기를 호위하던 F-84E 전투기 33대가 공산군의 MiG-15 전투기 25대와 개전 이후 최대의 조우전을 벌였다.⁴⁸⁾ 이 교전에서 미 공군기들은 피해 없이 MiG-15기 3대를 격추하고 3대에 피해를 주었다. 1952년 9월 4일 청천강 상공에서 개전 이래 가장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졌다. 이때 유엔공군 F-86기 39대가 MiG-15기 73대와 조우하여 17회의 교전으로 13대를 격추시켰다. 9월 중의 잇따른 공중전에서 유엔공군은 F-86기 6대와 F-84기 3대를 상실한 반면 MiG-15기 63대를 격추시키기도 하였다.

유엔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숙달된 조종사들을 투입한 반면에, 공산군은 최초에는 소련공군 조종사들이 비행해 왔다가 중공 및 북한 조종사들이 작전에 참가하기 시작했다.⁴⁹⁾ 공산군은 뛰어난 MiG-15 전투기를 보유하였

47) 공산군의 MiG가 유엔공군의 F-86 전투기가 미그 회랑(MiG Alley)에서 1950년 12월 17일 첫 공중전을 수행하는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This first mission had not gone into the section of northwest Korea soon to become known as ‘MiG Alley.’ December 17 saw the 4th FIW(Fighter-Interceptor Wing) F-86As make their first foray that area. Lieutenant Colonel Bruce H. Hinton, the 336th’s commander, led a flight of four Sabres(F-86) up to Yalu in hopes on enticing the MiGs into combat. In that, he succeeded...” see William T. Y’Blood, op. cit., p. 13; A. Timothy Warnock, Editor,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The USAF in Korea-a Chronology 1950-1953*, the Korean War Fiftieth Anniversary Commemorative Edition,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p.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1권(1976), p. 724.

48) 공군본부(역), 앞의 책, p. 199.

49) 6·25전쟁에 “소련군 조종사들이 참전하여 MiG-15 전투기를 조종하였으며 복장은 북한 군복으로 입고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내용도 있다. “...Neither estimate was accurate. The initial missions were flown solely by Soviet pilots, and only sometime later were Chinese and North Korean pilots gradually introduced into

음에도 불구하고 제공권 장악에 실패하였다. 6·25전쟁 기간 중 F-86전투기가 797대의 MiG-15기를 격추시킨 반면에, MiG-15기는 고작 78대의 F-86 세이버를 격추시킨 셈이니 약 10:1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⁵⁰⁾

6·25전쟁기간 중 공산군 조종사들이 채택한 ‘치고 달리기(*Hit-and-Run*)’ 전술은 방어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고, 만주에 설치된 발전기지 덕분에 폭격을 받을 염려가 없었던 공산군이 북한상공에서 제공권을 상실한 사실은 이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공산군 조종사들의 숙련도가 높아졌으며 새로운 공중전술을 사용하였다. 이른바 ‘요요(*Yo-Yo*)’ 전술이다.⁵¹⁾ 20대 이상의 MiG-15 전투기들이 F-86 편대의 고도보다 높은 고도를 비행하면서, 그 중 몇 대가 F-86 편대를 향해 급습하고 다시 고공으로 올라가면, 다른 전투기가 교대로 급강하하여 공격을 실시한 후 다시 상승하는 것이었다.

유엔공군은 전투지역에 대한 집중공격을 위하여 부대간의 시차제로 공격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산군이 집중공격을 할만한 대형 목표물을 식별하기가 어렵고, 전투지역에 투입된 소단위 비행편대를 추적하기가 어렵게 하기 위한 ‘제트스트림(*Jet Stream*)’ 전술을 채택하였다.

2) 후방차단작전시 항공기 운용

미 극동공군의 첫 후방차단임무는 1950년 6월 28일 미 제5공군 소속

combat operations. The Soviet fliers were ordered to dress in North Korean uniforms and even to speak Korean when making radio transmissions. Since few Soviets spoke Korean, they carried a tablet containing some commonly used phrases, spelled out phonetically. In the heat of battle such a subterfuge quickly collapsed as the pilots reverted to their native language. It was not long before the UN fliers suspected they were facing the Soviets...” Judy G. Endicott, *op. cit.*, pp. 34-36 참조.

50) 인터넷 자료, B. Kortegaard, “Korean War: Tanks and Fighting Vehicles”, <http://rt66com/~korteng/Smallarms/tanks.htm> 참조.

51) William T. Y’Blood, *op. cit.*, p. 10.

B-26폭격기와 F-80전폭기가 문산 철도조차장을 공격하고, B-29기 4대가 전선 근처에 있는 교량과 적 병력, 전차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과 유엔군은 남으로 진격하는 북한군의 압박을 받으며, 부산 방향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전차, 포병, 보병, 전투지역 국지적 차단 등을 목표물로 설정하였다.

유엔공군은 전쟁 초기에 북한의 병참선을 따라 작전지역으로 유입되는 병력과 물자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어 평양과 함흥의 철교를 차단하고, 함흥과 원산의 조차장을 봉쇄하기로 하였다. 1950년 7월 30일에는 간선도로에 대한 8월 2일부터 유엔공군의 제1차 차단작전이 시작되었다. 8월에 유엔공군의 B-29 폭격기들은 지정된 44개의 주요 교량들을 파괴하였다.

유엔공군의 제2·3차 후방차단작전은 1950년 9월과 10월에 인천 상륙작전과 부산교두보 돌파, 그리고 한국군과 유엔군의 38도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신안주로부터 북쪽으로 뻗은 철도와 도로상의 주요한 2개의 철교와 교량을 파괴하는데 역점을 두어 북한군의 보급품 수송을 지연시켰다.

중공군에 대한 제4차 후방차단작전은 1950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11월 7일 F-51기 편대는 강계 남쪽 도로상에서 약 600명의 중공군을 발견하고 이들을 공격하여 약 400명을 사살하였고, 미 극동군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유엔공군은 압록강과 폭격선 중간에 있는 모든 적의 보급소, 통신시설, 비행장, 지휘소와 병력집결지를 격파하기 위한 조직적인 작전을 시작하였다.

12월 15일과 18일 사이에 신의주-신안주간 철도의 일부를 절단시켰다. 미 제5공군 항공기들은 병력, 집결지, 보급로, 차량, 보급시설 등을 24시간 공격하였다.

1951년 1월 하순에는 전선 서쪽은 평양으로부터 서울로, 동쪽은 원산으로부터 서울로 이어지는 보급로, 그리고 회령에서부터 원산간의 전선을 이용하는 동북지역의 목표를 타격하였다. 2월 하순, 미 제7함대가 함재기와 함포의 협동공격계획에 따라 동해안의 철도에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

문에 폭격기들은 공격목표를 만포진-신안주-평양간 철도 쪽으로 옮겼다. 공산군은 주간의 간선도로와 철도 이용을 포기하고, 야간이동에 의존하게 되었다.

1951년 4월 미 극동공군 항공기와 미 극동해군 함재기들은 여러 차례 신의주의 국경철교와 인도교를 공격하였다. MiG-15기의 요격으로 출격한 B-29기 41대 중에서 3대가 격추되자 압록강 교량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었다.

공산군이 4월 23일 공세를 취하였을 때부터 근접공중지원을 위한 출격횟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4월 하순 미 해군의 함재기들은 주로 한국군 및 유엔군을 돕기 위하여 근접항공지원을 수행하였다.

1951년 5월의 마지막 주에는 미 공지합동작전으로 공산군 공격이 감소되었다. 6월 하순에는 유엔공군 전투기들은 평강, 철원, 금화로 형성된 이른바 ‘철의 삼각지대’에 대한 집중공격을 하였다.

3) 근접항공작전

아군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미 극동공군과 한국공군의 근접항공지원(CAS: Close Air Support)은 6·25전쟁 개시일부터 시작되었다. 유엔공군과 한국공군은 가용한 모든 항공전력을 동원하여 아군 지상군의 후퇴를 엄호하였다. 미 극동공군의 근접지원임무는 6월 2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날 하루 동안에 22회나 출격하였다.

1950년 여름 기간동안에 미 8군은 CAS요청을 중계하거나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통신망을 설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방항공통제관, 일명 모스키토(Mosquito)⁵²⁾를 이용하여 통신을 전달하는 방법을 통신수단으로 사용하

52) 북한군이 대전에 압력을 가하게 되자 7월 13일 항공통제 기능을 대구비행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대구에서 T-6기와 조종사를 추가로 지원받아, 7월 15일 미 제5공군은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전방 항공 통제관(조종사)(Forward Air Controller)에게 “모스키토(Mosquito)”라는 호출부호를 붙였다. 이 호출부호는 널리 퍼져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이 부대는 “모스키토”라고 불리게 되었다.

기도 하였다.

불리한 전황으로 한국에는 부산 수영비행장밖에 사용할 수 없었으며, 8월 15일에 미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미 제1기병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새벽에 출격하여 북한군 T-34 전차 2대를 파괴하고 약 300명의 북한군을 사살하였다. 전폭기들은 대구 북방 15마일 지점에서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을 타격하여 한국군 제1사단을 지원하였다.

8월 이후 한국공군은 T-6 항공기로 통영과 영천 등지에서 지상군 지원을 위한 정찰 및 관측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T-6 항공기의 지원으로 8월 20일 실시된 한국군 최초의 해·공·해병대의 합동작전인 통영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9월 7일의 영천작전 중 L-5 정찰기의 정찰보고는 위기에 처해 있던 한국군 제2군단을 구출하였고, 영천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⁵³⁾ 이 작전에서 T-6 항공기는 한국군 제2군단에 대해 88회의 정찰과 53회의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대구-영천-대구간을 매일 정기적으로 정찰, 관측하였으며, 왜관 다부동, 의성, 영천, 포항, 영덕방면의 전선일대와 낙동강일대의 적정을 정찰하여 한국군 지상작전을 지원하였고, 대구기지를 중심으로 포 관측으로 협동작전을 수행하였다.

6·25전쟁 전 기간을 통하여 언제, 어디에, 어느 수준의 근접항공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합동작전센터가 취급하였으며, 근접항공지원 임무는 사전전투지시(Pre-briefed) 임무, 긴급출동(Scramble) 임무, 공중대기(Air-Alert) 임무로 구분된다. 가장 많이 활용된 긴급출동 임무였으며, 이는 항공기에 사전에 연료와 탄약을 탑재하고,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은 채로 활주로 끝에서 대기하면서 전선으로부터의 지원요청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공중대기 임무는 가장 비경제적이고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임무양식이었다.

53) 북한군 지도부는 1950년 12월 4일 별오리(평안북도 만포진 북방 3km 지점에 위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소집하여 6·25전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인민군은 영천 점령이 남한에서 승리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는데 영천전투의 실패로 북한군이 패배하게 되었다”고 한 것을 보아도 영천전투를 대단히 중요시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공중보급·수송 작전

1950년 6월 27일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6·25전쟁 참전 결정에 따라 주일 미 제24사단 27연대 1대대(일명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7월 1일 미 극동공군의 C-54 수송기로 6회에 걸쳐 부산 수영비행장에 공수되었다.

캐나다 공군의 제426수송대대는 1950년 7월 26일 미국 워싱턴 근교의 맥코드(McCord) 기지로 이동하였으며, 8월 중순까지 6대를 수송기를 이용하여 비행한 항로는 앵커리지-알류산 열도-일본 하네다(羽田) 기지간의 군수품과 병력을 수송하였다.

태국 공군은 C-47 수송기 3대를 일본 다치가와(立川) 미 공군기지로 파견하여 병력, 병기, 장비, 보급품 등을 공수하였다. 특히 지상전투가 격렬해지자 26인승의 C-47 수송기와 36인승의 C-54 수송기가 투입되었다. 그러나 미 공군이 보유한 C-47 수송기에는 병상 또는 의료설비가 없고, C-54 수송기는 대형기로서 활주로나 짧은 한국 내 비행장에서는 운용에 어려움이 많아 소형이며 의료설비가 구비된 태국 수송기들이 긴급후송임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30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은 일본으로 후송하였다.⁵⁴⁾

1950년 11월 하순부터 한국과 만주의 국경선에 도달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에게 약 60km에 걸쳐 포위되었다. 영하 30도 이상의 혹한, 우세한 병력, 험난한 도로 사정으로 이들 선봉 전투부대들은 곤경에 처하였다. 미 제8군과 미 해병대 제1사단의 공중보급·수송지원에 집중되었다. 하갈우리에서는 3,000피트 길이의 임시 활주로⁵⁵⁾를 건설하여 12월부터 C-47 수송

54) 국방부군사연구소, 위의 책, pp. 341~342 참조.

55) 하갈우리 비행장은 함경남도 장진호 남단에 위치한 마을로 공중 폭격으로 폐허상태였으며, 1950년 12월 유엔군 소속 미 제10군단의 압록강 방면 진격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한 약 3,000피트 길이의 임시비행장으로 유엔공군의 수송기 이착륙이 가능하였다. 1950년 11월~12월에 미 해병대 1사단의 장진호 전투시 군수지원, 전상자 후송을 위해 사용되었다. William M. Leary,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the Korean War Fiftieth Anniversary Commemorative Edition, Air

기가 운용되었으며, 6일 동안 미 해병대 제1사단 병력 4,377명이 연포비행장에서 항공기에 의한 철수를 단행하였다.⁵⁶⁾

12월 1일에는 미 해병대 1사단을 지원하던 미 제7사단의 2개 대대가 장진호 지역에서 중공군에 포위된 상태에서 48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환자후송을 위한 헬리콥터⁵⁷⁾와 함재기⁵⁸⁾를 요청하였다. 눈이 내리는 악천후 기상하에서도 SB-17⁵⁹⁾ 4대, SA-16⁶⁰⁾ 2대, C-17⁶¹⁾ 1대를 연포비행장에 파견하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pp. 16-17.

56) 이명환, 앞의 글, pp. 418~419 참조.

57) 벨 47헬리콥터(Bell 47 Helicopter)는 미 육군은 이 헬리콥터를 H-13D, 미 해병대에서는 HTS-4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최초비행은 1945년에 하였고, 초기형의 바퀴달린 장착장치는 스키드 형으로 바뀌었으며, 그 스키드(skid) 위에 담가(擔架, Litter kit)를 설치했다. 1951년 한 해 동안 8,500명의 부상자가 H-13에 의해 전방으로부터 수마일 후방에 있는 야전병원으로 수송되었다; 벨 OH-13H 헬리콥터의 주요 제원으로 기폭<주 날개(2엽) 반경> 11.32m, 동체길이 9.63m, 중량 888kg, 최대이륙중량 1,338kg, 최대 속도 169km/h, 항속거리 507km 등이다. R-5(H-5H)는 미국에서 제작한 것으로 6·25전쟁 당시 미 해군과 해병대가 운용한 관측용 헬리콥터로서 수색, 정찰, 환자수송 및 해안경비 등에 사용되었다. 주요 제원으로 주 날개 4엽, 수송능력 2명, 기장 13m, 기폭 14.9m, 중량 2,263kg이다; H-19 칩소(Chicksaw) 헬리콥터는 1949년 미국 Sikorsky社에서 개발하였으며, 6·25전쟁 기간 중 미 공군에서 승객 및 화물 수송, 항공 우편, 구조 및 탐색임무에 운용하였다. 주요 제원으로 주 날개기 4엽, 수송능력 승무원 2명(승객 10명), 기장 12.9m, 기폭 16.1m, 중량 2,383kg, 최대속도 180km, 실용상승한도 6,969m, 항속거리 650km 등이다.

58) F-4U 코르세어 전투기(Corsair Fighter)는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 항공사단 등에서 함재기로 운용한 항공기로 폭 12.29m, 길이 10.17m, 중량 5,000kg, 순항속도 671km, 무장 12.7mm 기관총 등이다.

59) SB-17 항공기는 B-17을 탐색 및 구조용으로 개조하여 동체아래에 구명정(식량, 연료, 구급약 등 적재)을 부착한 것으로 6·25전쟁 당시 운용되었다. 1943년에 최초비행에 성공했으며 12,731대를 생산하였다. 주요제원으로 폭 103ft 9in, 길이 74ft 4in, 중량 55,000lbs, 순항속도 182mph, 무장은 12.7mm 기관총 13문, 폭탄 6,000lbs 등이다.

60) SA-16 항공기는 다목적 수륙양용으로 미 해군의 요구에 맞게 육상과 수상은 물론, 스키를 장착하여 눈 위나 얼음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1949년 10월 최초비행을 하였다. 미 공군은 수상항공구조임무를 위해 29대를 도입하였으며, 6·25전쟁 기간 중 1,000명의 유엔군을 구조하였다. 주요 제원으로 폭 96ft 8in, 길이 63ft 3in, 중량 36,000lbs, 순항속도 165mph 등이다.

였다. 미 해병대 1사단의 요청에 따라 T-6 1대와 F-81 8대가 장진호 지역에 급파되었으며, F-51 12대가 이날 오후에 근접항공지원 작전을 실시하였다.

12월 8일에는 3일간 C-47 항공기가 함경남도 고토리 비행장(2,400피트)으로부터 16톤 중량의 8개의 경간으로 된 교량 1조를 작전지역으로 공중 투하하였으며, 부상자 300명을 후송하였다. 기간 중 C-119 수송기⁶²⁾도 해병대원들이 함흥 방면으로 진출이 용이하도록 탄약과 식량을 공중에서 투하하였다.

12월 12일에는 연포비행장으로부터 대대적인 항공작전이 실시되었다. 12일과 17일 사이에 461대의 수송기가 작전에 투입되었으며, 2,760톤의 병력과 장비를 후송하였고 여기에는 병력 5,200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12월 17일, 1대의 C-54가 최후로 연포비행장을 이륙하였으며, 12월 24일 유엔군이 함흥에서 철수를 완료할 때까지 C-47에 의한 후송 작전이 이루어졌다. 미 제10군단이 장진호 지역으로부터 흥남지역으로 철수하는 동안 2,113회의 전투기와 수송기 출격횟수를 기록했으며, 8,200톤의 화물을 공수하였고, 여기에 병력 9,915명의 공중수송이 포함되었고, 약 1,400톤의 보급품이 공중에서 투하되었다.

3. 함정 운용

함정은 수상함과 잠수함(정)으로 크게 구분하며,⁶³⁾ 수상함에는 구축함,

61) C-17 수송기는 미 공군의 전략·전술 수송기로 Lockheed社에서 1930년에 제작한 것으로 1931년 최초비행을 하였다. 6·25전쟁 당시 운용되었으며, 주요 제원으로 폭 41ft, 길이 27ft 6in, 중량 5,175lbs, 순항속도 190mph, 항속거리 640miles 등이다.

62) C-119 박스카(Boxcar) 항공기는 미국 Fairchild社에서 제작한 수송기로 승무원 6명과 6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수송기이다. 1950년에 실전에 배치되었으며, 주요 제원으로 폭 33.32m, 길이 26.36m, 높이 8.0m, 중량 38,556kg, 최대속도 350km/h, 항속거리 2,850km, 쌍발 엔진(Wright R-3350-89B, 3,500hp) 등이다.

호위함, 초계함, 고속함(정) 등 전투함정류, 기뢰부설함, 기뢰탐색함, 소해함(정) 등 기뢰전 함정류, 상륙함, 고속상륙정, 군수지원정 등 상륙전 함정류, 유조함, 군수지원함, 구조 및 예인함, 해양조사함, 훈련함 등 지원 함정류, 잠수함(정)류가 있다.

함정은 필요한 시간, 장소, 기간 동안 최대의 공격력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전투능력, 기동성, 전투지속능력, 방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연계되어 운용된다.

본 장에서는 6·25전쟁기 전쟁 단계별, 해군작전 성격별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공산군의 함정 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쟁 단계별 함정 운용

1) 전쟁 초기 함정 운용(1950. 6. 25~1950. 11)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일본 해역에서 활동 중인 순양함 1척,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된 미 해군 제96기동부대와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 및 화물 수송선 각 1척을 보유한 제 90기동부대가 있었다.⁶⁴⁾ 그리고 미 해군의 핵심전력인 제7함대는 필리핀에 기지를 두고 있었다. 미 극동해군은 1950년 6월 27일 순양함 1척과 구축함 4척으로 한국지원전대를 구성하였다. 주니유(Juneau)호는 6월 29일 동해 해상 초계 중 23:00경 묵호 해안에 집결 중인 공산군을 발견하고 6·25전쟁에서 처음으로 400여 발의 함포를 사격하였다.

그리고 7월 2일 주문진 해상에서 부상중인 북한군 어뢰정 3척과 포함 2

63) 국방부, 『국방획득관리규정』 국방부 훈령 제727호, (2003. 2. 1), pp. 16~18.

64) 6·25전쟁에 참가한 미 해군부대는 극동해군(1950. 7~1953. 7), 제7함대(1950. 7~1953. 7), 제90기동부대(1950. 6~1953. 11), 제95기동부대(1950. 6~1953. 7) 등이다(해군본부 (역), 『미 해군 참전사』(1976), p. 501.

척을 격침시켰다. 이는 미 해군이 6·25전쟁에서 북한 함정과 벌인 처음이자 마지막 해상교전이었다. 미 해군은 7월 18일 제1기병사단을 ‘블루하트(Blue Heart)’라는 암호명의 포항상륙작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상군의 낙동강방어선 구축에 기여하였다.

9월 15일 ‘크로마이트(Chromite)’라고 명명된 인천상륙작전에서 260척의 함정을 동원하여 인천상륙작전을 지원하였다. 9월 초에 부산, 일본의 사세보(佐世保), 고베(神戸), 요코하마(橫濱)에서 상륙군과 물자를 탑재한 후 10일부터 참가 함정들은 인천으로 이동하여 월미도에 대한 함포사격, 보급품 양륙 등을 하였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미 제7합동기동부대는 ‘테일보드(Tailbord)’로 명명된 원산상륙작전을 위하여 원산항 일대에 부설된 기뢰제거를 위하여 일본 소해정 8척, 한국 소해정 1척 등 총 21척의 소해정을 동원하였으나 약 3,000개가 넘는 많은 기뢰가 부설되어 있어 1주일이나 해상에서 체류하다가 25일 접적 없이 원산에 상륙하였다.⁶⁵⁾

영국 극동함대사령관은 6월 29일 4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는 1만 3천 톤급의 경항공모함(Triumph) 1척과 6"포를 장비한 순양함 2척, 그리고 구축함 3척, 호위함 4척으로 구성된 전대를 일본 사세보 항으로 파견하였다.⁶⁶⁾ 7월 2일 주문진에서 공산군 선박을 발견하고 포격을 가하여 어뢰정 3척을 격침시켰다. 영국해군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북한군 해군과 첫 충돌이자 마지막 전투가 되었다.⁶⁷⁾ 이 때 경항공모함에서 발진한 21대의 함재기들은 해주비행장, 열차, 교량 등을 폭격하였다. 7월 18일 미 제1기병사단의 포항 상륙을 지원하기 위하여 38도선 인근해역에서 경비와 초계 임무

65) 해군본부(역), 『미 해군 참전사』(1976), p. 278.

66) 6·25전쟁에 참가한 영국 함정으로 항공모함은 Triumph, Ocean, Theseus, Glory, Unicorn이며, 순양함은 Belfast, Jamaica, Ceylon, Kenya, Newcastle, Birmingham, 구축함은 Cossack, Consort, Comus, Concord, Constance, Cockade, Charity 등이다. 해군본부(역), 『미 해군 참전사』(1976) p. 73.

6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제11권 (1980), p. 503.

를 수행하였고, 함재기들은 원산, 함흥, 홍남 등 주요도시의 비행장과 철도 시설 등을 포격하였다. 지상군이 북진을 개시하자 함포지원은 물론 도서지방의 피난민 구호에도 참여하였다.⁶⁸⁾

호주의 프리깃함 솔해븐(Shoalhaven)호와 구축함 바탄(Bataan)호는 개전 초기에는 미국인 철수선과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과 부산간을 왕래하는 수송선단의 엄호임무를 수행하였다.⁶⁹⁾

네덜란드 에베르트센(Evertsen)호는 1950년 7월 19일 유엔군이 낙동강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 서해로 진출하여 공산군의 병력과 물자를 차단하고 함재기의 공격목표를 유도하였다.

캐나다 함정들은 시옥스(Sioux), 아다바스칸(Athabaskan)호는 주로 부산-일본 간의 수송선단을 엄호하는 호위임무를, 캐유가(Cayuga)호는 서해안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2) 중공군 개입 이후 함정 운용(1950. 11~1951. 7)

1950년 12월 초 제8군이 평양에서 철수를 결정하자 유엔해군은 모든 함정을 동원하여 12월 5일까지 진남포에서 38도선 남쪽으로 부상병, 포로, 군수물자, 피난민 3만여 명을 철수시켰다.

동부전선에서 12월 3일부터 원산항을 통한 해상철수에 이어 10일부터는 유엔해군은 항공모함 7척, 전함 1척, 순양함 2척과 구축함 7척, 로켓함 3척으로 화력지원부대를 편성하고 125척의 수송선을 동원하여 15일 미 해병대 제1사단을 탑재한 선박의 철수를 시작으로 24일 오전 마지막 제대를 탑승시킨 후 홍남항을 폭파함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이때 병력 105,000명, 피난민 91,000명, 화물 35,000톤, 차량장비 17,500대 등 대형선박 193척의 선적량이 철수되었다.⁷⁰⁾

6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13.

69) 국방부군사연구소, 『UN軍支援史』(1998), p. 207.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평택-제천-삼척 선으로 밀려났던 한국군과 유엔군이 1951년 1월 말 재반격작전을 개시하면서 해상작전도 다시 활기를 띠면서 봉쇄 및 호송작전에 주력하게 되었다. 2월에는 진남포 수로에 있는 초도, 웅진반도 근해의 백령도서군, 영흥만 내의 도서군을 점령하였다. 유엔해군은 2월 16일 원산항을 봉쇄하였고, 3월 8일에는 항구봉쇄작전이 성진까지 확대되었다.⁷¹⁾ 공산군의 후방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원산-회령간 철도와 도로, 교량들을 포격하였다. 4월 초에는 공산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영국 해병특수부대를 단천 부근에 침투시키기도 하였다.⁷²⁾

영국 함정들은 1950년 11월 중공군이 참전하자 함정을 진남포 일대로 파견하여 유엔군의 철수작전을 엄호하던 중 진남포 일대의 수로조건이 열악하여 2척이 좌초되고 4척만이 빠져 나오자 구축함들은 함포사격으로 항만을 파괴하였다.⁷³⁾

호주 함정들은 1950년 12월 초 유엔군이 철수를 개시하자 진남포로 입항하다가 좌초되기도 하였다. 1951년 2월 인천 일대에서 함포 지원사격으로 유엔군의 재반격작전을 지원하였다.

네덜란드 함정들은 1951년 4월 18일 에베르트센호는 교대한 반가렌(*Van Galen*)호는 한강 하구와 해주만 폭격작전을 수행하였다.

뉴질랜드 함정은 1951년 5월 18일 초도-석도 간을 초계 중 해안포 진지 1개소를 발견하고 4인치 포탄 29발을 사격하여 이 진지를 완전 파괴하였다. 이 사격이 뉴질랜드 해군이 참전한 이후 최초의 함포사격이었다.

캐나다 함정들은 1950년 12월 4일 서해안에서 캐나다 구축함 3척이 호주 구축함 2척, 미국 구축함 1척으로 구성된 혼성함대가 상륙전단의 진남포 철수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남포항으로 접근 도중 수로가 협소하고

70)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pp. 126-130.

7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704.

72)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p. 131.

7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515.

암초가 산재해 있어 2척(*Sioux, Athabaskan*)의 구축함이 좌초되기도 하였다.

태국 함정 프리깃함 프라새(*Prasae*)호와 방파공(*Bangpakong*)호는 1951년 1월 3일 미 구축함 잉글리쉬(*English*)호와 함께 동해안의 양양, 장전, 초도리 부근의 해상초계와 해안의 철도역, 교량 등을 파괴하기 위하여 출동하였으며, 1월 6일 기상악화로 첫 출동한 프라새호가 7일 07:00에 38도선 16km 북쪽 속초 부근 해안에 좌초되었다.⁷⁴⁾

3) 휴전협정기 함정 운용(1951. 7~1953. 7. 27)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개시되자 해군은 개성시 및 서해안 부근 일대가 공산군 지배하에 있지 않음을 보이기 위하여 강력한 함재기의 폭격 및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7월 말 항공모함 2척을 동원한 해주만 일대에서의 봉쇄작전은 임시휴전선 확정시 타협되지 않던 도서 등 일부지역을 관찰하에 두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9월 중에는 미 공군의 후방차단작전과 협조하여 철도수송망 파괴작전을 실시하였으며, 항공기 출격이 어려운 악천후시 구축함의 함포사격은 효과적이었다.

공산군이 휴전기간을 이용하여 교통호, 유개호 등 진지를 구축함으로써 아군의 포병, 함포, 항공 폭격이 곤란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 해군은 사정거리가 11~16마일이나 되는 16" 함포가 장착된 순양함을 동원하여 공산군의 병력집결지를 포격하여 지상작전을 지원하였다.

호주 함정들은 1951년 7월 초에는 압록강 입구에서 진남포에 이르는 해안을 초계 및 포격 임무를 수행하였다. 10월 21일에는 압록강 하구의 대화도를 공격하기 위하여 집결중인 대규모 적을 폭격하던 중 함재기들이 공산군의 대공포에 맞아 3대가 격추되기도 하였다.⁷⁵⁾

7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 272~273.

7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0권(1979), p. 120.

네덜란드 함정들은 1951년 11월 18일 영국함대와 함께 동해안의 흥남으로 진출, 흥남항 봉쇄작전에 참가하여 공산군의 대공포 진지를 포격하였다.

뉴질랜드 함정은 1951년 8월 25일 초도 남쪽 서곶리(西串里) 해안포대 기습공격에는 영국 해병대 11명과 함께 로토이티(*Rotoiti*)호 승무원 7명도 참가하여 1명은 전사하였다. 이것이 6·25전쟁기간 동안 뉴질랜드 해군의 유일한 인명손실로 기록되었다.⁷⁶⁾

캐나다 함정 캐유가호는 서해안의 초도와 석도의 방어를 맡아 11월 6일부터 석도 맞은 편 암각(岩角) 일대에서 해·공 합동작전으로 공산군의 해안포를 파괴하려 했으나 교묘히 위장되어 있었고 침묵을 지켜 진지파괴는 실패하였다.

1952년에 접어들면서 미 해군은 지상군에 대한 지원작전에서 전략도서 확보와 후방지역 교란작전에 중점을 두었다. 동해안에서는 미 함정들은 원산-함흥-성진에 이르는 해안지역을 포격하였다. 10월 초 고저(庫底)에 양동작전을 실시하였다. 고저 근해에는 기함인 전함 아이오아(*Iowa*)호를 비롯한 100여 척의 함정이 집결하여 세력을 과시하였다. 1952년 42척의 함정이 공산군의 해안포 사격에 피해를 입었고, 또 2월 예인함 사르시(*Sarsi*)호가 흥남에서 기뢰폭발로 침몰하였다.

네덜란드 함정들은 함재기와 함포의 사격이 무관측하에 실시되어 공산군의 병력과 물자의 이동을 방해 또는 교란하는데 그쳐 지상 및 공중관측자의 통제하에 효과적인 사격을 실시하였다.

뉴질랜드 호위함은 1952년에 접어들어서도 계속 서해안에서 해안표적 사격과 전력도서에 대한 해상초계활동을 수행하고 있던 중 2월 중순에 양도로 공격해 오는 공산군을 발견한 즉시 함포사격으로 10여 척을 격침시켰다.⁷⁷⁾

캐나다 함정들은 1952년 10월 2일 동해안의 철도파괴작전에 참가하여 성진항으로 접근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하고 복귀하던 중 공산군의 해안포 공

7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705.

77)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p. 248.

격을 받아 2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인명손실은 캐나다 해군이 전쟁에 참가한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다.⁷⁸⁾

태국 함정 제2 파라새(Prasse II)호와 타친(*Tachin*)호는 1952년 1월 13~23일까지 동해안으로 출동하는 미 유조선의 호송임무를 맡아 동해안의 거친 파도와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호송임무를 훌륭히 완수하였다. 4월 4일에는 공산군의 해안포사격이 빈번한 울릉도-성진 해역에서 미 유조선을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953년에 접어들면서 적의 해안포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미 해군 순양함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호 및 브레머톤(*Bremerton*)호가 구축함 5척과 함께 피격되었다.

미 제7함대는 6월 14일~15일 한국군의 351고지 탈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함 뉴저지(*New Jersey*)호와 순양함 세인트파울(*Saint Paul*)호의 호위하에 4척의 항공모함을 동원하였으며, 일부 함정들은 원산항의 봉쇄작전을 실시하였다.⁷⁹⁾

영국 함정들은 1953년 초에는 주로 함재기에 의한 공산군의 해안포 진지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었고, 4월부터는 해상조건이 호전되어 함정들도 참가하게 되었다.

호주 함정들은 서해의 해주만-석도-초도 근해를 해상초계, 해안포격, 유엔군 유격대의 상륙작전 등을 지원하면서 휴전을 맞게 되었다.

네덜란드 함정들은 6월 6일 진남포 근해에서 유엔군의 소해활동을 방해하는 공산군의 해안포 진지를 포격하였다.

뉴질랜드 함정들은 1953년 2월말에 동해안으로 파견되어 열차파괴작전에 투입되었고, 4월 25일 공산군이 미 소해정을 목표로 박격포와 해안포 사격을 집중하자 대응사격으로 공산군의 해안포 진지를 완전 제압함으로써 우수한 사격술을 과시하였다.

7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335~336.

79) 해군본부(역), 『미 해군 참전사』(1976) pp. 526-527.

<표 8> 6·25전쟁에서 손상된 북한군과 유엔군의 주요 군함 현황⁸⁰⁾

일 자	국가	손 상	원인 및 결과
1950. 6. 26	북 한	수송함 1척	대한해협에서 북한군 1,000톤급 수송함(600명 승선상태)을 한국해군 701함(백두산호)이 6·25전쟁 중 침몰시킴
1950. 7. 2	북 한	PT정 3척	순양함 USS <i>Juneau</i> , HMS <i>Jamaica</i> , 호위함 HMS <i>Black Swan</i> 에 의해 격침
1950. 7. 25	미 국	병원선 <i>Benevolence</i>	잠수함 <i>Mary Luckenback</i> 과의 충돌로 침몰, 한국해군용으로 재취역
1950. 9. 29	미 국	소해정 <i>Magpie</i>	기뢰 접촉 침몰, 21명 실종, 6·25전쟁 중 침몰한 최초의 미 해군함정
1950. 9. 30	미 국	구축함 <i>Mansfield</i>	기뢰 접촉 손상, 5명 실종
1950. 10. 12	미 국	소해정 2척	<i>Pirate</i> (AM-275)과 <i>Pledge</i> (AM-277) 원산항에서 침몰
1950. 12. 4	영 국, 호 주, 캐나다	구축함 6척 (각국 2척)	진남포에서 피난민 철수작전시 수로조건이 열악하여 좌초
1951. 1. 6	태 국	프리깃함 <i>Prasse</i>	동해상에서 해상초계와 철도·교량과괴 입무수행 중 좌초

(2) 해군작전 성격별 운용

1) 연안작전시 함정 운용

동해안에서의 연안작전은 원산, 흥남지역의 해안포에 대한 포격을 비롯

80) 6·25전쟁 당일 21:30 공해상에서 발견된 북한군의 1,000톤급 수송함(북한군 육전대 약 600명이 승선한 상태)이 6. 26. 01:25 대한해협에 침투하자 한국해군이 최초로 701함(백두산호)을 운용하여 격침시켰다. 대한해협 전투에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 北韓의 全面南侵과 初期 防禦戰鬪(2005), pp. 729-733 참조; James L. George 저, 허홍범 역, 앞의 책, p. 501.

하여 원산, 성진, 청진 등에서 철도, 도로 및 교량 파괴작전, 원산, 단천, 청진 일대에서 보급 및 군사시설에 대한 포격을 실시하였다. 고성 351고지 탈환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4척의 항공모함이 동원되기도 했다.

1950년 6월 29일 미 극동해군의 주니유호는 동해에서 해상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23:00경 묵호 해안에 집결중인 공산군을 발견하고 연안에서 400여 발의 함포를 사격하였다.

1951년 2월 원산-회령 간 철도와 도로, 교량을 포격하였고, 순양함 미주리호는 16" 함포로 단천강의 철교를 파괴하였다. 8월 25일 뉴질랜드 함정은 초도 남쪽 서곶리 해안포대 기습공격에 영국 해병대 11명과 함께 로토이티호 승무원 7명도 참가하여 1명은 전사하였다. 11월 18일 네덜란드 함정들은 영국함대와 함께 동해안의 흥남으로 진출, 흥남항 봉쇄작전에 참가하여 공산군의 대공포 진지를 포격하였다.

1952년에 접어들면서 미 해군 함정들은 원산-함흥-성진에 이르는 해안 지역을 포격하였다. 2월 중순에 뉴질랜드 호위함 타포호가 동해안에서 열차파괴작전에 참가하였다. 타포호는 2월 19일 의료진의 양도 상륙과 중상자들의 후송 지원으로 한국군 해병대의 양도작전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6월 14일~15일 양일 동안 미 제7함대는 한국군의 351고지 탈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양함 뉴저지호와 세인트파울호의 호위하에 4척의 항공모함을 동원하였다. 10월 초 공산군의 병력증원을 차단하고 공산군을 유인하기 위하여 고저(庫底) 지역에 양동작전을 실시하기 위하여 100여 척의 함정이 참가했다. 10월 2일 캐나다 함정들은 동해안의 철도파괴작전에 참가하여 성진항으로 접근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하자 공산군의 해안포 공격을 받아 2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해연안에서의 연안작전은 압록강에서 진남포에 이르는 공산군의 해안포 진지에 대한 공격을 비롯하여 진남포 철수작전시 부상병과 피난민들의 철수를 돕기도 하였다. 전략요충지인 5개 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방어에 주력하기도 했다. 인천 월미도와 한강 하구의 해안포

진지와 보급품 저장시설에 대한 포격을 실시하였다.

1950년 12월 초 호주 함정들은 진남포에서 유엔군의 부상병과 피난민들의 철수를 엄호하다가 진남포로 입항하다가 좌초되기도 하였다. 1951년 4월 18일 네덜란드 반가렌호는 한강 하구와 해주만 폭격작전을 수행하였다. 7월 초 호주 함정들은 압록강 입구에서 진남포에 이르는 해안에서 공산군 전차와 수송차량을 파괴시켰다. 8월 말에는 경항공모함 시드니호와 구축함 안작호, 호위함 무치슨호가 투입되어 해상전력이 보강되었다. 휴전회담 기간 중에 서해안의 주요 전략도서인 초도와 석도의 방어를 맡아 11월 6일부터 석도 맞은편 암각(岩角) 일대에서 해·공 합동작전으로 공산군의 해안포를 포격하였으나 진지파괴는 실패하고 다수의 어선만 파괴시켰다.

1952년 전반기 호주 바탄호는 서해안에서 해안봉쇄, 해안포격, 유엔군 유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1952년 후반기 콘다마인호는 동해안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였다. 1952년 말까지 네덜란드 함정들은 개성-평양 해역을 오가며 공산군의 해안포 진지와 보급품 저장시설을 포격하였다.

1953년 1월 18일 네덜란드 함정들은 해안포격, 도서방어, 항공모함 엄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3월 중 공산군의 해안포 활동이 증가하여 미 해군 순양함 로스앤젤레스호 및 브레머튼호가 구축함 5척과 함께 피격되었다. 영국 함정들은 1953년 초 함재기에 의한 공산군의 해안포 진지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였다. 4월 25일 공산군이 미 소해정을 목표로 박격포와 해안포 사격을 집중하자 즉시 대응사격을 개시하여 공산군의 해안포 진지를 완전 제압함으로써 뉴질랜드 해군의 우수한 사격술을 과시하였다.

2) 해상작전시 함정 운용

동해안에서는 12월 3일부터 미 해군은 동부전선에서 원산항을 통한 해상 철수를 시작하였으며, 10일부터는 흥남에서 공산군 주력부대의 추격을 차단하고, 해상철수작전을 엄호하기 위하여 항공모함 7척, 전함 1척, 순양함

2척과 구축함 7척, 로켓함 3척을 외해에 대기시켰다. 24일 오전까지 수송선 125척으로 병력 105,000명, 피난민 91,000명, 화물 35,000톤, 차량장비 17,500대 등 대형선박 193척의 선적량을 철수시켰다.

1951년 1월 3일 태국 함정 프라세호와 방파공호가 미 구축함 잉글리쉬호와 연합으로 동해안의 양양, 장전 부근의 해상초계와 해안의 철도역, 교량 등에 대한 파괴임무를 받고 출동했으나, 1월 6일 기상악화로 첫 출동한 프라세호가 7일 07:00에 속초 부근 해안에 좌초되기도 하였다. 1952년 1월 13~23일까지 태국 함정 제2 프라세와 타친호는 동해안으로 출동하는 미 유조선의 호송임무를 맡아 호송임무를 수행하였다. 유엔해군은 동해안 영흥만 내의 도서군을 점령하였다. 2월 16일 원산항을 봉쇄하였고, 3월 8일에는 항구봉쇄작전이 성진까지 확대되었다. 3월 19일 타친호는 38도선 160km 북쪽에서 미 해군 작전을 지원하는 해군수송선 4척을 엄호하였다.

남해안에서는 개전 초기에 호주의 호위함 솔해브호와 구축함 바탄호가 부산 일본으로 향하는 미국인 철수선과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과 부산간을 왕래하는 수송선단을 엄호하였다. 캐나다 시옥스호와 아다바스칸호는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기 전에는 부산-일본 간 수송선단을 엄호하였다.

서해안에서는 1950년 8월 지상군의 전선이 낙동강방어선에 고착되자 목포, 인천, 해주 지역에 대한 해상봉쇄작전을 실시하였고 하순에는 군산을 해상 봉쇄하였다. 7월 19일 유엔군이 낙동강방어선 구축시 네덜란드 에베르트센호는 서해로 진출하는 공산군의 병력과 물자를 차단하고 함재기에 공격목표를 유도했으며,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될 무렵에는 인천 외항에서 상륙전대를 엄호하기도 하였으며, 캐나다 캐유가호도 수송선단에 대한 엄호를 하였다. 1951년 1월 말에 중공군이 후퇴하자 유엔해군의 해상작전도 다시 활기를 띠면서 봉쇄 및 호송작전에 주력하게 되었으며, 2월에는 북한군 후방지역에서 선박통제와 기뢰부설 감시는 물론 38도선 이북의 서해안 전략 도서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7월 10일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해상작전은

공산군의 공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엔군이 38도선 북쪽의 전략도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3) 상륙작전시 함정 운용

1950년 7월 18일 영국 함정들은 미 제1기병사단의 포항 상륙을 지원하기 위하여 38도선 인근해역에서 경비와 초계 임무를 수행하였고, 경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함재기들은 원산, 함흥, 흥남 등 주요도시의 비행장과 철도시설 등을 포격하였다.

9월 15일 유엔해군이 260척의 함정을 동원하여 인천상륙작전을 지원하였다. 9월 초에 부산, 일본의 사세보, 고베, 요코하마에서 상륙군과 물자를 탑재한 후 10일부터 참가 함정들은 인천으로 이동하였다. 13일 월미도에 대한 함포사격이 시작되었고, 15일 새벽, 2차로 월미도에 대한 함포사격이 시작되었다. 2차에 걸친 월미도에 대한 함포 및 항공사격이 끝나자 상륙군이 상륙돌격을 개시하였다. 16일 미 해병대가 해안두보를 확보한 후 상륙군이 경인가도로 진출하자 인천 외해에 정박 중인 함정들은 함포사격으로 상륙군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영국 함정들은 인천상륙작전 개시 전에 양동작전의 일환으로 원산, 삼척, 울진에 대한 함포사격과 군산상륙을 지원하였고, 인천상륙작전시 상륙부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호주의 구축함 2척은 인천상륙작전시 항공모함에 대한 엄호임무를 수행했으며, 9월 하순부터는 군산과 인천의 해안에서 함포 지원사격 및 해상초계활동을 수행하였다.

10월 10일부터 미 제7합동기동부대는 원산상륙작전을 위하여 원산항 일대에 부설된 기뢰제거가 작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부각되자 일본 소해정 8척, 한국 소해정 1척 등 총 21척의 소해정을 동원하여 기뢰제거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상륙예정일이 20일로 연기되기도 하였다.

4. 항공기 및 함정의 운용상 특징

(1) 제공권 장악과 조종사 자질

6·25전쟁은 현대전에 있어서 성공적인 전투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공군력의 중요성을 결정적으로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것은 또한 공군 단독으로는 적절한 지상정찰이나 지상전에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낼 수도 없다는 사실도 상기시켜 주었다. 개전 3일 만에 유엔공군력의 우수성에 압도되 제공권을 상실한 공산군은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MiG-15 전투기의 생산을 서두르게 되었다.

F-86A-5와 MiG-15기 두 전투기의 성능만을 비교할 때 MiG-15와 F-86A-5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했다. 특히 전투기들 사이의 공중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승능력에서 기체가 작은 MiG-15가 F-86보다 뛰어났으나, 수평 비행 속도와 하강속도에서는 세이버가 앞섰다. 그런데 두 전투기의 성능차이보다 공중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조종사들의 임무 수행 능력과 숙련도였다. 유엔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숙달된 연합군의 조종사들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공중전에서 우위를 장악하려 하였던 반면에, 공산군은 최초에는 소련공군 조종사들이 비행해 왔다가 중공 및 북한 조종사들이 작전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F-86전투기의 등장으로 MiG기의 비행이 불가능해졌으며, 피격율이 약 10:1로 F-86전투기가 월등하게 우세하였다.

(2) MiG-15 전투기의 출현과 항공 전술의 변화

6·25전쟁에서 공산군 조종사들이 채택한 치고 달아나는 일명, ‘치고 달리기(Hit-and-Run)’ 전술을 운용하였다. 1952년 1월 하순까지 계속되다가

변화하였는데 이는 소규모 편대를 이루어 고공과 저공을 비행하여 F-86에 대해서는 소수의 편대가 공격을 가하고, 나머지 편대들은 전폭기를 공격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하여 유엔공군 항공기의 대규모 편대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를 비행하기가 곤란하였다. 공산군 조종사들의 숙련도가 높아지자 이른바 ‘요요(Yo-Yo)’ 전술을 사용했다. 20대 이상의 MiG-15 전투기들이 F-86 편대의 고도보다 높은 고도를 비행하면서, 그 중 몇 대가 F-86 편대를 향해 급습하고 다시 고공으로 올라가면, 다른 전투기가 교대로 급강하 하여 공격을 실시한 후 다시 상승하는 것이었다. 유엔공군은 전투지역에 대한 집중공격을 위하여 부대간의 시차제로 공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산군이 집중공격을 할만한 대형 목표물을 식별하기가 어렵고, 전투지역에 투입된 소단위 비행편대를 추적하기가 어렵게 하기 위한 ‘제트스트림(Jet Stream)’ 전술을 채택하였다. 이 전술은 4대로 구성된 편대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편대들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고도로 전투지역에 진입하였다.

(3) 헬리콥터 운용의 효용성 입증

6·25전쟁을 통해서 기동성 있는 수송, 정찰, 철수, 구출작전 등을 위한 새로운 방편으로서 헬리콥터의 잠재력이 크게 입증되었다. 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헬리콥터가 정찰, 후송 및 구조작업에 적합함을 보였다. 1950년 12월 1일 북한의 장진호 지역에서 중공에 포위된 상태에서 48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환자후송을 위한 헬리콥터와 수륙양용기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구조지역의 기상이 시계가 불량하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나 12월 2일 12:00시에 미 해병대가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함으로써 공중환자의 필요성은 없어졌으나, 환자후송용 헬기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였다.

야전에서 발생한 환자를 신속히 후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H-5 및 H-13 헬리콥터가 절실하였다. H-13 헬리콥터는 민수용 벨 47 헬리콥터를 군용으로

로 도입하면서 초기형의 바퀴달린 강착장치는 스키드 형으로 개조하였고, 그 위에 擔架(Litter kit)를 설치하여 환자후송용으로 운용하였으며, 연락 및 전화선 가설용으로도 운용하였다.

(4) 근접항공지원 활용의 극대화

6·25전쟁 초기 한국공군 T-6 항공기의 지원으로 1950년 8월 20일에 실시된 한국군 최초의 해군·공군·해병대의 합동작전인 통영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북한군이 영천전투를 승패의 관건으로 보고 대접전시에 대구-영천-대구간에서 운용하던 L-5 항공기의 9월 7일의 정찰보고는 영천전투 중 위기에 처했던 제2군단을 구출하였고, 영천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관건이었다. 그러나 1950년 여름 기간 동안에 미8군은 근접항공지원 요청을 중계하거나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통신망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근접항공지원 임무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사전에 연료와 탄약을 탑재하고, 조종사가 항공기의 조종석에 앉은 채로 활주로 끝에서 대기하면서 전선으로부터의 지원요청을 기다리는 긴급출동임무였으나, 항공기를 특정 공역으로 파견하여 선회를 하면서 지상군과 협력하고 있는 전방항공통제관으로부터의 지원요청을 대기하는 공중대기임무는 가장 비경제적이고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임무양식이었다.

(5) 제해권 장악과 기뢰 부설

미 극동해군은 1950년 6월 27일 순양함 1척과 구축함 4척으로 한국지원 전대를 구성하였으며, 주니유호는 6월 29일 동해 해상 초계 중 23:00경 묵호 해안에 집결중인 공산군을 발견하고 6·25전쟁에서 처음으로 400여 발

의 함포를 사격하였으며, 7월 2일 주문진 해상에서 북상중인 북한군 어뢰정 3척과 포함 2척을 격침시켰다. 이는 미 해군이 6·25전쟁에서 북한 함정과 벌인 처음이자 마지막 해상교전이었다.

10월 10일부터 미 제7합동기동부대는 ‘테일보드(Tailbord)’로 명명된 원산상륙작전을 위하여 원산항 일대에 부설된 기뢰제거가 작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부각되었다. 이를 위해 일본 소해정 8척, 한국 소해정 1척 등 총 21척의 소해정을 동원하여 기뢰제거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약 3,000개가 넘는 많은 기뢰가 광범위하게 부설되어 있어 상륙예정일은 20일까지도 계속되었다. 이 기뢰제거작전에서 소해정 4척이 작전 중 침몰되었고, 상륙군은 원산 외항에 도착하여 1주일이상 해상에서 체류하다가 25일 접적 없이 원산에 상륙하였다. 이로 인해 미군이 보급물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6) 항공모함 가치의 부각

미 극동함대 소속의 함재기들도 공중우세작전에 가담하였다. 항공모함 벨리포지(*Valley Forge*)를 중심으로 한 유엔해군 제77특별기동부대의 함재기들이 1950년 7월 3일과 4일에 평양과 온정리 비행장을 공격하였다. 이 공격에서 YAK기 2대를 격추시켰고 지상에 주기고 있는 10대에 피해를 주었다. 7월 18일에는 제77특별기동부대의 함재기들이 다시 평양비행장을 공격, 지상의 항공기 14대를 격파하였고, 13대에 피해를 주었다. 전쟁 초기에 제공권 장악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역 조차장을 폭격하고 있던 제22폭격전대의 B-29가 구름 속에서 느닷없이 출현하여 후미에 접근하는 미확인 전투기에 총격을 가하여 그 중 1대가 격추되었는데 이 항공기들은 영국 항공모함 트라이엄프(*Triumph*)에서 발진한 씨타이어(*Seaire*) 전투기로 인하여 우군끼리의 오인에 의한 공중전투

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1950년 12월 원산으로 상륙한 미 해병대가 장진호 지역으로 진격해 갔다가 중공군의 압력으로 후퇴하게 되자 해상으로 홍남철수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때 미 해군은 주력부대의 추격을 차단하고, 해상철수작전을 엄호하기 위하여 항공모함 7척, 순양함 2척과 구축함 7척 등으로 화력지원부대를 편성하여 외해에 대기시켰으며, 125척의 수송선을 동원하여 철수하였다. 항공모함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5. 맺 음 말

지금까지 6·25전쟁에서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공산군이 사용했던 항공기 및 함정의 운용과 그 특징, 전쟁에 미친 영향을 맺음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살펴본 것은 항공기의 전쟁 단계별, 항공작전 성격별 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유엔공군은 6·25전쟁시 거의 모든 기간에 제공권을 장악했으며, 북한군은 개전 초기 3일간 우세한 공중활동을 했으나 제공권을 상실하였다. 현대전에서 공군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항공기의 성능이 우수하더라도 조종사의 임무수행 능력과 숙련도가 공중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작전시 한국이 아닌 일본과 필리핀 등지의 기지를 활용하였으며, 공산군은 만주에서 1950년 11월 8일 이후 MiG-15기를 발진시켜 유엔공군의 F-86A와 공중전을 벌였다. 비행기지가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였다. 전천후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장 건설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산군 조종사들은 ‘치고 달리기’ 전술을 운용하였다. 만주에 기지를 두고도 적극적 공격이 아닌 방어적 공격을 취하였다. 공산군 조종사들의 숙련

도가 높아지자 ‘요요’ 전술의 사용으로 유엔공군이 공산군 항공기를 격추하
기가 더욱 어렵게 되자 전투지역에 대한 집중공격을 위하여 부대별 시차제
로 공격계획을 수립하고 소단위 비행편대로 구성하여 운용하는 ‘제트스트림’
전술을 채택하였는데, 교리의 발전과 전술전기 연마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동성이 있는 수송, 정찰, 철수, 구출작전 등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 헬리콥터가 한반도에서 정찰, 후송 및 구조작업에 적합함을 보였으
며, H-13 헬리콥터는 초기형의 바퀴달린 강착장치를 스키드 형으로 개조
하여 환자후송용으로 운용하였으며, 헬리콥터의 성능 개량에도 영향을 미
쳤다.

1950년 7~8월에 미8군은 근접항공지원 요청을 중계 또는 통합할 수 있
는 통신망이 없어 문제점이 노출되자 전술항공통제반이 전방항공통제관을
활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사용하였으나 이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음은 물론 지원요청 절차의 개선도 요구되었다.

두 번째는 함정의 전쟁 단계별, 해군작전 성격별 운용에 대해서 살펴보
았다. 이 가운데 필자가 관심을 끈 것은 유엔해군의 제해권 장악과 지상군
지원이었다.

1950년 9월 15일 유엔해군은 260척의 함정을 동원하여 인천상륙작전을
지원하였으며, 10월 10일부터 원산상륙작전을 위하여 원산항 일대에서 일
본 소해정 8척, 한국 소해정 1척 등 총 21척의 소해정을 동원하여 기뢰제
거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상륙부대가 원산 외항에 도착하여 1주일 이상 해
상에서 체류하기도 했다. 기뢰의 부설 및 제거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
었다.

1950년 12월 원산으로 상륙한 미 해병대가 장진호 지역으로 진격해 갔으
나 흥남철수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유엔해군은 해상철수작전을 엄호하기
위하여 항공모함 7척, 순양함 2척과 구축함 7척 등으로 화력지원부대를 편
성하여 제해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항공모함 등이 크게 기여했다. 항공모함
의 효용성이 입증되어 그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6·25전쟁은 대량의 항공기와 함정이 투입, 운용된 국제적 전쟁이었으며, 항공기와 함정의 운용 면에서도 제한전쟁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현지 지형에 적합한 무기체계의 도입·운용, 무기의 성능 개량·개발, 전술 교리의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전쟁이었다.

(원고투고일 : 2006. 2. 8, 심사완료일 : 2006. 3. 9)

주제어 : 6·25전쟁, 항공기, 함정, 제공권, 해군작전

K C I

<ABSTRACT>

The Employment of Aircraft & Warship during the Korean War

Kang, Chang-kook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employment of aircraft and warship of friendly or foe during the Korean War.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friendly forces including the ROK Armed Forces and UN Allied Nations including the USA, and foe forces including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 and Chinese Communist Forces (CCF), employed the various kinds of weapon system.

The Korean War was the International War that executed the massive of weapon, and the Limited War in the employment aspect of weapon system. Major weapon system employed in the war, were the conventional weapons such as tanks, armored vehicles, small arms, machine guns, mortars, and guns as the mobile weapon system though the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 had developed already, And also aircraft such as fighter, bomber, cargo, helicopter in the air, aircraft carrier, cruiser, destroyer, frigate on the sea were employed.

Through the analysis of aircraft and warship employed during the Korean War, we can obtain the lessons and effects to the war as the followings:

The importance of air and naval superiority is reconfirmed. After employment of MiG-15 Fighters by the Communist, tactical and skill for air combat was greatly changed. Helicopters were appeared newly for transport,

search and rescue, evacuation. Close Air Support (CAS) was effective for ground forces, but system and equipment for request and equipment need to be developed. Sweeping Mines in the sea was very hard to operate. The value of Aircraft Carrier is reestimated as a key naval forces.

Throughout the Korean War, we can hav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at the weapon suitable to the Korean peninsula need to introduce and employ, the doctrine need to develop, and the performance of weapon system need to modify and develop, too.

Key Words : Korean War, Fighter, Warship, Air Superiority, Naval Operations

K C I